

#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무죄'

### 3인조 17년만에 누명 벗어

삼례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린 3인조가 17년 만에 재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대열(38) 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심청구인 최대열(38) 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하지 않다"면서 "자백의 동기나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찬 재판장은 또 "재판관으로써 소회를 밝히지면 17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법원은 정신지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다시 한 번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심청구인 최대열씨는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리고 새 출발하겠으



지난 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는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할머니 유모(당시 77)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돼 재심청구인 최대열씨는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리고 새 출발하겠으

이후 최씨 등은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 지난해 3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유족이 보관 중인 현장검증 동영상과 최씨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압 수사를 당한 사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당시 사건 기록 등을 제시하며 재심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근 기자

## 전주보건소, 쯔쯔가무시증 감염주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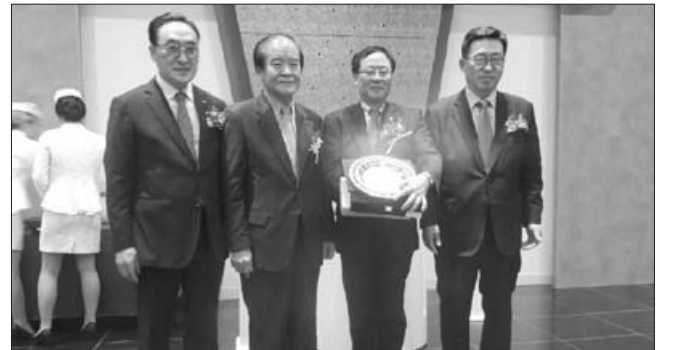
전주시는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쯔쯔가무시증 등 발열성 4대 질환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8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중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이 가을철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4대 질환이다.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감염된 진드기 유충 등에 물려 감염된다. 신중후군출혈열은 쥐 등의 소변 및 분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렙토스피라증은 설치류 등 야생동물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이 피부 상

처와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다. 가을철발열성 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질병인 쯔쯔가무시증은 황순털 진드기와 대잎털진드기가 주요 매개체로 환자의 90% 이상이 가을철부터 초겨울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남서부지역에 서식하는 황순털 진드기의 분포지역 확대 및 개체 수가 증가해 지난 2011년 5,151건이었던 전국 발생건수가 지난해 9,51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야외 활동

## 전주 자봉센터, 태풍 수해복구 자원봉사자 표창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8일 전주시장실에서 으뜸자원봉사자 일반 3명, 청소년 2명과 태풍 '차바' 수해복구 자원봉사자 6명의 시상식을 진행했다. 시상 표창장을 받은 주인공은 일반인 대상 꽃발정노인복지관 에브라임 배식봉사대 소속 고재국(74)씨, 모퉁지 작은 도서관 소속 전형미(64·여)씨, 서서학동 자율방범대 정은아(50·여)씨 등 3명과 청소년 대상 정영균(15)군, 이수빈(16·여)양 등 2명이 선정됐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또 제18호 태풍 '차바'로 침수 피해를 당한 경상북도 경주를 찾아 재난재해 봉사활동 지원에 참여한 50여명의 봉사자 중 우수 자원봉사자 6명을 선정해 전주시장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유공자 표창을 받은 주인공들



## 김현덕 전주시의원 '전북환경대청상'

### 환경보호 실천 생활화 공로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삼천1·2·3동, 효자1·2동)이 전북환경대청상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라투체별관에서 NGO환경문제연구소가 주관하고 전북환경대청상재전위원회가 주최한 '제18회 전북환경대청상 시상식'에서 환경대청상 시의회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환경보호 실천 생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전주시의회 제10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등 친환경적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고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가 사회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보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환경보호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드론축구 중주 도시로 우뚝 선다

### 내달 4일 개막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 드론기술·탄소소재 활용한 드론축구 경기 첫 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드론과 전주시 미래먹거리로 각광받는 탄소소재를 이용한 드론축구 경기가 대한민국 최초로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6 한·중 3D프린팅드론산업박람회'에서 드론축구 시범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드론축구는 전주시와 협력기관인 (사)캡티브종합기술원이 최근 드론산업 기술이 급성장하고 널리 보급됨에 따라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신개념 스포츠이다.

특히,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시범경기에서는 드론축구공을 탄소소재를

활용한 전용보호기구로 감싸 초고속으로 날아다니다 경기 중 서로 부딪히더라도 잘 깨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는 양팀 약 5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하게 되며, 드론 축구플레이어 및 축구공은 관중들의 눈높이 맞춰 일정한 높이(1.5m 정도)에서 축구경기를 진행하게 된다. 또, LED기술 활용 색조명과 효과음 등의 특수효과, 유니폼으로 무장한 드론플레이어들이 박진감 넘치는 축구경기를 진행해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최

한 '2016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공모사업' 중 드론축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3년간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 이후, 시는 지난달 6일 서울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차년도 국비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드론산업 자변확대에 본격 나서게 됐다. /김영재 기자

## 전주지역 3학년 교과서에 내년부터 신중양시장 등재

전주지역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를 통해 신중양시장을 배울 수 있게 됐다. 지난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신중양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역아동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시장이 학교다' 프로그램이 2017년도 전주지역 3학년 교과서에 실린다.

신중양시장 '시장이 학교다' 프로그램은 시장상인들이 교사가 돼 아이들에게 직접 가게를 소개하고 각종 체험을 안내·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 주중체험교실은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꽃가게 체험(나만의 화분을 꾸며요!) △생선가게 체험(꿀꿀꿀을 낚시를 만져요!) △반찬가게 체험(아삭아삭 김치를 버무려요!) △떡 가게 체험(콩더욱 인절미를 만들어요!)으로 진행됐다. 또, 주말체험교실은 온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두 곳의 가게를 체험하고, 시장 내 문화예술체험점포에서 도자기공예와 한지공예 등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영재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